

# 1월1일자 지방공무원 정기인사 단행

도교육청, 신규임용 87명  
승진 166명·전보 378명  
정년·명예퇴직 등 753명

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1일 3급 이하 지방공무원 753명에 대한 2019년 1월 1일자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정기인사는 승진 166명(3급 1명, 4급 5명, 5급 13명, 6급 58명, 7급 89명), 전보 378명, 정년(명예)퇴직 및 공로연수 84명, 신규임용 87명 등 총 753명이다.

이현규 서기관(현 학생교육원 총무부장)이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하며 마한교육문화회관장으로 발령됐으며, 정책공보담당관 기획소통협력담당에 김형기 사무관(현 행정과 학생배치담당), 감사담당관 청렴총괄·감사담당에 김인수 사무관(현 재무과 경리담당), 전북교육연수원 행정연수부장에 강현구 사무관(현 행정연수과장), 전북학생교육원 총무부장에 최창암 사무관(현 전주공업고 행정실장), 전북학생해양수련원 총무부장에 강영주 사무관(현 부안교육문화회관 총무과



장)이 서기관으로 승진 발령되었다. 아울러 총무과장에는 박해정 서기관(현 교육과장),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총무부장에 김경미 서기관(현 교육과장), 전북교육연수원 총무부장에 김영주 서기관(현 정책공보담당관 기획·소통협력담당), 김제교육문화회관장

에 최성희 서기관(현 총무과장)이 전보 발령됐다. 또한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전보는 전보희망자에 따라 346명을 본인의 희망지역에 배치했으며, 공직에 입문하는 교육행정 70명과 사설, 공업, 운전직 17명 총 87명의 신규 공무원은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발령했다. 한편 3급, 4급, 5급 인사발령자와 도교육청 진출입 6급 이하 공무원은 26일, 신규임용 공무원은 27일에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각각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 도교육청, 학기말 학사운영 전수 점검 '보류'

도교육청은 교육부가 강원도 강릉 펜션 사고 이후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학기말 학사 운영 및 교외체험학습 관련 현황을 점검해 보고 하라고 한 데 대해, "현장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며 전수 점검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21일 "고3 학기말 학사운영 전수점검의 건은 시행을 보

류할 것"을 지시한 뒤, "추후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필요성 여부와 형식을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 김 교육감의 이 같은 지시는 이번 사건의 본질이 현장체험학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학사운영 점검은 이미 해마다 실시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강릉 펜션사고와 관련해

지난 19일 '학기말 학사운영 및 교외체험학습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내고, 점검결과를 21일 오전까지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교육부는 공문에서 교외체험학습은 ▲현재 승인된 교외체험학습에 대해 학생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 학교에서 재점검 ▲새로 승인하는 체험학습의 경우 인솔자 동행 등 안전에 우려가 없는지 각별히 검토 후 승인하고, 안전수칙(연락체계포함) 등을

학부모 및 학생에게 안내 ▲고3 학생 대상 숙박형 교외체험학습 실시 현황 파악(고3) 등을 요청했다. 학사운영과 관련해서는 ▲학년말 학사운영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전수 점검(고3) ▲수능 이후 고3 학생들의 교육과정 내실화 도모를 요청했다. 아울러 행정사항으로 숙박형 교외체험학습 실시현황 및 학사운영 점검 결과(고3학생 해당)를 21일 오전까지 보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장은성 기자

## 도교육청, 대학생 초청 학과별 진로멘토링 운영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1일부터 3일간 전북 출신 대학생 멘토단을 구성해 학과별 진로멘토링을 운영한다. 변화하는 대입제도에 따른 고등학생의 진로진학 상담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전북 출신 대학생으로 26개 학과 35명의 멘토단을 꾸려 군산, 전주, 익산 고등학교 1,2학년생을 대상으로 학과 선택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과 선택의 기준과 방법, 올바른 공부법 및 진로선택, 꿈과 목표 설정 방법 등을 안내했다. 이번 진로멘토링은 21일 군산대 황룡문관광관을 시작으로 22일 전주대 JJ아트홀, 오는 전북과학교육원에서 실시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어진다. 오전에는 TED식 특강 형태 로 문과 4팀, 이과 4팀으로 구성된 대학생 멘토단이 공감콘서트를 운영하고 오후에는 멘토-멘티 만남 및 소그룹 토론회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진로와 적성, 대학생으로서 추구하는 삶의 방향, 고교시절 교과학습 방법 노하우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질문과 답변이 오갈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진로멘토링을 통해 도내 고교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꿈을 찾고 미래를 설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학과별 진로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여 학생 중심 상담활동에 내실을 기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학생교육원 '찾아가는 안전교육' 큰 인기

전북학생교육원(원장 박종각)은 21일 오수중학교를 끝으로 도내 30개 중학교 1,526명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성황리 마쳤다. '생활속의 안전실천 건강한 우리학교'라는 주제로 안전의식과 재난상황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이어진 교육은 올해로 도내 141개 중학교 10,456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교육내용은 크게 생활안전교육과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OX 퀴즈 세 분야로 나뉘고, 학교에서 희망하는 교육을 맞춤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한명도 빠짐없이 실습에 참여하게 된다. 김진진 교육연구사는 "찾아가는 안

전교육은 많은 학교들이 참여하고 싶어 할 만큼 인기가 높고 아이들의 반응도 좋다.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이 재난 등 위기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안전을 몸으로 익혀서 생활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학생교육원은 도내 고등학교 1, 2학년생을 대상으로 2박3일간의 정규 수련교육과 특별 수련교육과정으로 1박2일의 '학생 자율캠프'와 '중학생 진로캠프', '나문화가족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총 6,577명이 수료했으며 학생중심의 안전한 수련교육 운영으로 교사와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고 있다. /장은성 기자

## 학생들이 말하는 '학생자치'란?

학생인권교육센터, 학생인권토론회 개최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가 22일 '제8회 학생인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학생자치,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다'를 주제로, 도내 고등학교 학생 및 교사 200여명이 참여했다. 이는 학교자치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반영해 나가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는 분임별 주제 토론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학생자치의 결립들은? △학생회에 260만 원의 예산이 주어진다? △학교와 교육청에 바란다 등 3가지 주제에 대해 분임별로 토론을 하고

발표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정책제안들은 고등학생 학생회장 단 지역별 대표가 김승환 교육감에게 직접 전달, 정책 수립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인권교육센터 관계자는 "단위 학교의 학생자치활동 사례와 고민을 공유해 정책적 대안을 수립하기 위한 자리"라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이 교육의 주체로 인정받고,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는 민주적이며 인권우조적인 학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가 일본 진출의 꿈을 갖고 있는 학생 10명을 선발해 3개월간의 일본연수를 다녀왔다.

## 글로벌기업으로 취업 기회 확대하다

전북기계공업고 학생 10명  
3개월간 일본 연수 다녀와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주관하는 2018년도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일본 진출의 꿈을 갖고 있는 학생 10명을 선발해 3개월간의 일본연수를 다녀왔다. 방과후 수업을 활용해 일본어 기초과정을 운영했고, 110시간의 심화교육, 4주간의 일본내 어학 연수는 학생들의 일본어 실력을 빠르게 향상시켰다. 이러한 어학교육은 일본내 자동화 설비분야에서 최고의 기업으로 선정된 제일실업공업주식회사에서 8주간의 인턴생활을 가능케 했다. 글로벌 연수를 통해 학생들은 일본 진출을

현실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자신감과 도전정신을 얻었다. 국내 취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글로벌 마인드를 통해 해외 기업체로 눈길을 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현재 일본연수를 마친 학생 중 캐논코리아 4명, 오디텍 1명은 취업이 확정됐고, 요코가와 전기회사에서 채용요청서를 받아 채용면접을 앞두고 준비 중이다. 3개 회사 모두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인재를 채용조건으로 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직업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연수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한다면 국내 취업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